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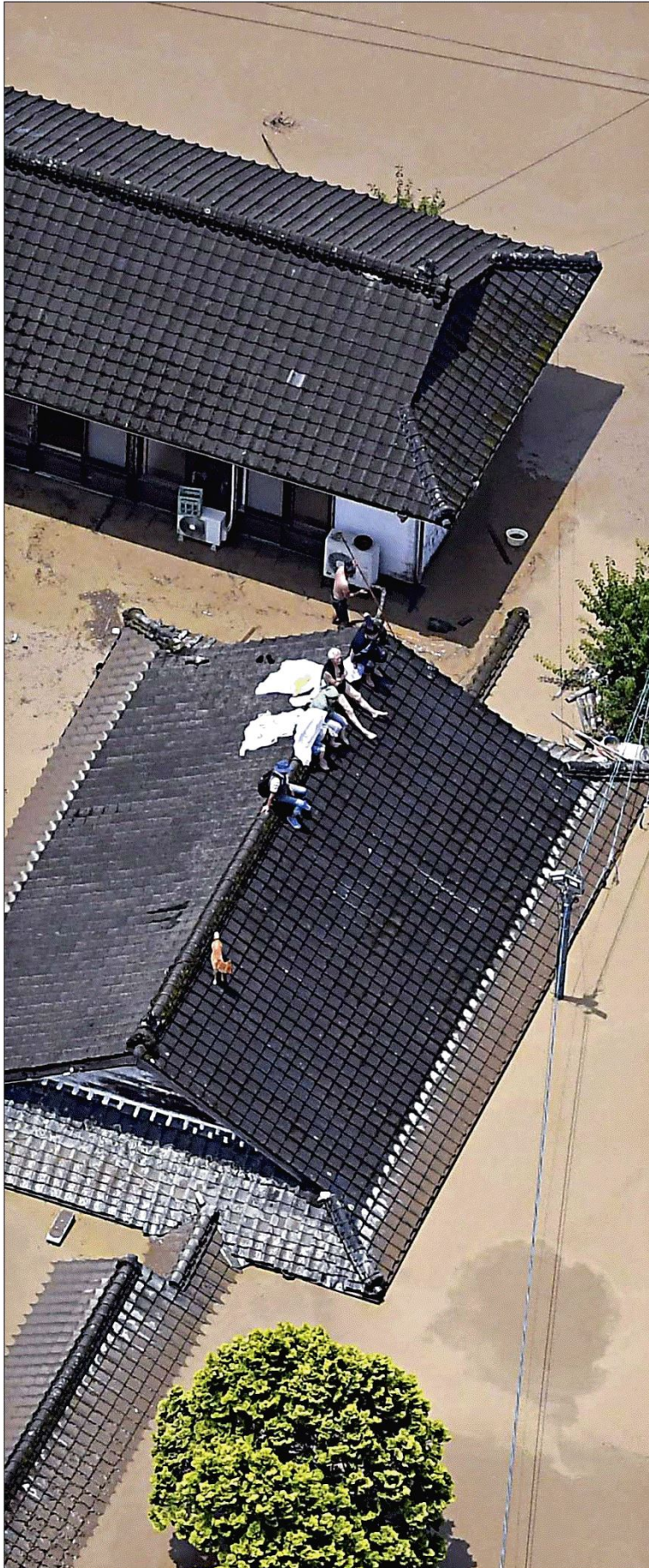
▪

2020.07.06.()



2020. 07. 06()

	...	1
	日 ... 20	2
	日 37 -12	3
	" "	3
	가 日 ... 40	4
	中 日 ' '	5
	日 ,	6
	中·日 ... 日 17	7
	20	8
		8
	...	9
	日 49	10
	日 ... 500mm	11
	...	12
	日 ' ' ... 20	13



강야지 데리고 지붕 위 대피... 일본 구마모토서 폭우로 수십명 사상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에 지난 4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주민들이 침수된 집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5일 오후 5시 현재 2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심폐정지, 14명이 실종 상태라고 NHK가 전했다. 히토요시 | 연합뉴스

日 구마모토 기록적 폭우... 최소 20명 숨져

양로원 인명 피해 커... 산사태 잇따라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든 일본에 기록적 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커지고 있다.
 5일 일본 NHK방송은 전날 새벽부터 구마모토현에 쏟아진 폭우로 구마강 인근 11곳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2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1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심폐정지는 의사의 공식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 전 일본 당국이 사용하는 용어

다. 아직 피해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마무라 지역의 '센쥬엔' 노인 요양시설이 건물 2층까지 물에 잠기며 피해가 집중됐다. 고령자 50여명과 직원들이 있었던 이 시설에서만 14명이 심폐 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에 나선 자 위대원은 "요양시설에 아직 30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산사태도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아시키타마치에서는 산사태로 집



지난 4일 일본 남서쪽 구마모토현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구마강이 범람하면서 히토요시시(市)가 흙탕물에 잠겨 있다. AP 연합뉴스

이 무너져 8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고, 쓰나기마치에서도 80대 남성이 토사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구마모토현에서 15건, 인접한 가고시마현에서 1건 등 최

소 16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피해 지역에 자위대 1만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구마모토 현 아마쿠사시에서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98mm, 미나마타시에서는 일일 총 강수량이 500mm에 달했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질 예정이라며 장마전선이 오는 8일까지 일본에 머무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20만3000명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日 구마모토 폭우로 최소 37명 사망-12명 실종

4일 새벽 시간당 100mm 폭우 주민들 공터에 '쌀-물-SOS' 문자 노인요양시설 14명 숨진채 발견
 중남부도 한달 넘게 폭우 쏟아져 121명 사망-실종... 이재민 1938만명

일본과 중국에서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적어도 17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5일 NHK에 따르면 일본 규슈 남부 구마모토 현에서 전날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이날 오후 9시 현재 3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다. 아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데

다 5일 밤에도 폭우가 계속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4일 새벽에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구마강 등 2개의 강이 11곳에서 범람했다. 구마강 범람으로 침수된 구마부리의 한 노인요양 시설에선 1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요양 시설로 이어지는 도로가 침수돼 소방대원과 자위대원은 보트를 타고 접근해 노인들을 구출했다.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에서도 구마강의 제방이 붕괴돼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구마모토현에서 15건, 가고시마현에서 1건 등 최소 16건의 산사태도 발생했다.
 폭우로 피해를 본 구마모토현 주민들이 마을 공터에 '쌀-물-SOS'라는 문자를 크게 써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NHK 항공 촬영으로 포착됐다. 지붕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

었다. 긴급 출동한 자위대원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선 9만 가구, 20여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피한 이들은 단수와 단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구마모토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도 끊겼다. 대피소 내 위생 문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폭우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대책실을 설치했다.
 중국 남부지역에서도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사망자가 속출했다. 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 광둥, 후베이, 구이저우 등 26개 성과 시에서 한 달간 폭우로 12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재민은 1938만여명이다. 또 가옥 1만7000채가 붕괴되고, 농경

지 156만 ha가 물에 잠겨 총 416억4000만 위안(약 7조67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최근 중국에서는 9개 현에서 역대 일일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국 전국 평균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293.9mm였다. 중국 대륙 중앙부를 흐르는 창장(長江)강 일부 지류는 1951년 이후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지난 한 주간 하천 2곳에서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고, 32개 하천은 제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위를 넘긴 홍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당분간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방재총국 관계자는 "7~8월 북부 지방에 강수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 기간 동북 3성 등에서도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고립된 주민들 구조하라” 5일 일본 규슈 남부 구마모토현 폭우 피해 지역에서 인명 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보트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4일부터 규슈지방에 내리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로 5일 오후 9시 현재 구마모토현에서만 최소 37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실종됐다. 폭우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마을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구마모토=AP 뉴스

기록적 폭우가 할퀸 日규슈... 40여명 사상

고령자시설 덮쳐 수용자 17명 심정지
하천 11곳 범람·산사태 16건 등 피해

지난 4일 일본 규슈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4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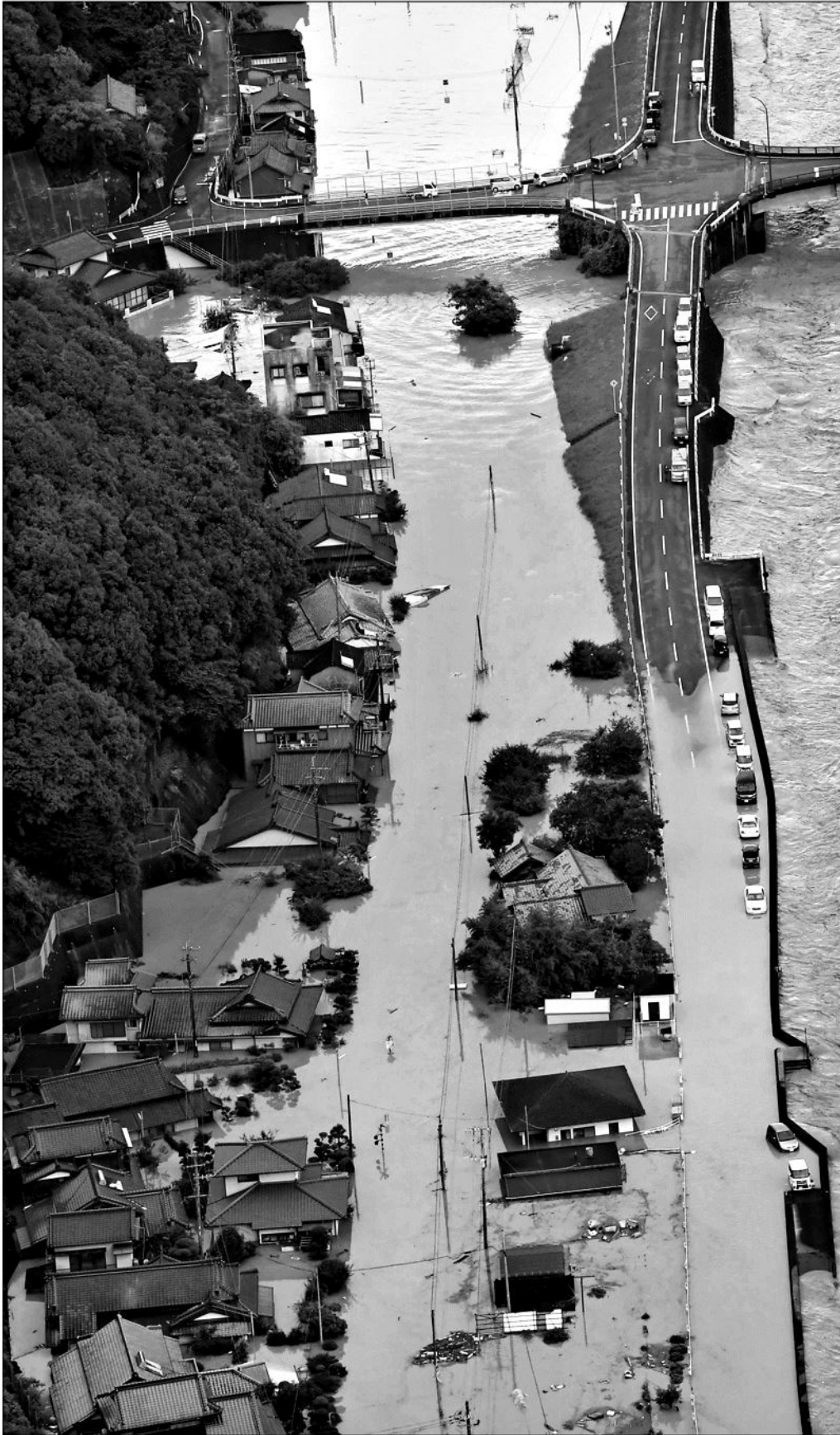
NHK에 따르면 5일 현재 구마모토현에서는 전날 내린 폭우로 20명이 숨지고 14명이 심폐정지, 14명이 실종상태에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선상형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4일 새벽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진 구마모토현에서는 구마강 등 2개 하천에서 11곳이 범람, 히토요시시 등이 물에 잠겼다. 또 구마모토현에서 15건, 가고시마현에서 1건 등 최소 16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지역의 6000여 가구는 이날 현재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마모토현 아시키타마치에서는 산사태로 6명이 사망했고, 구마촌에서는 고령자 시설 수용자 17명이 밀려든 물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 폭우로 피해를 본 구마모토현 주민들이 마을 공터에 ‘쌀·물·SOS’라는 문자를 크게 써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항공촬영으로 포착돼 현지 주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친척집에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한 55세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물이 너무 빨리 2층까지 차 오르는 상황이었다. 지붕에 급히 올라가 구조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 가고시마의 2개 현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대책실을 설치했다. 일본 기상청은 “5일에도 서일본에서 북일본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달 8일까지는 계속되는 폭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중 이어 日에도 '물폭탄' 일본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현에 지난 4일 내린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마강이 범람해 강변 가옥들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NHK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사망자·실종자가 40명을 넘어섰고 노인요양시설이 침수되는 등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 한편 중국 남부 지역에서도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지며 지난 3일까지 12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구마모토 AP연합뉴스



日자위대, 하천범람 인명 구조작업
태에 빠진 채 발견됐다.

일본 자위대와 경찰대원들이 5일 구마모토현의 구마무라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하천 범람으로 침수된 한 노인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현지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17명이 심폐정지 상태에 빠진 채 발견됐다. /EPA 연합



AP 연합뉴스

4일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市)에서 헬리콥터가 침수된 가옥 지붕 위를 날며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4일 폭우로 인한 강 범람과 산사태 등으로 약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中·日 물폭탄... 日요양병원 침수돼 17명 심정지

**中 한달 폭우로 이재민 2000만명
日구마모토에선 48명 사망·실종**

중국 창장(長江) 일대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2000만명 가까운 이재민을 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폭우로 약 5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구이저우(貴州), 충칭(重慶), 광시(廣西), 후베이(湖北) 등 26개 성·시에서 이재민 1938만명이 발생하고 12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또 농경지 156만ha가 침수되는 등 416억위안(약

7조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다. 창장 유역의 도시에서는 도로가 1m 가까이 물에 잠기는 곳이 속출하고, 산간 지역에서는 집이 급류에 통째로 휩쓸려가기도 했다. 지난달 초부터 창장 남부 일대에는 한 달째 폭우 경보 수준의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홍수 피해는 1998년 창장 대홍수 이후 최악의 피해라는 평가도 나온다. 1998년 창장 등에서 발생한 홍수로 2억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4150명이 사망·실종됐다.

창장 중류에 있는 세계 최대 댐(三峽)은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다. 댐사

댐 안전을 우려하는 글이 인터넷에 이어졌지만, 중국 당국은 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 남부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현에서는 4일 시간당 최고 100mm의 폭우가 내려 사망자와 실종자가 약 50명 발생했다. 5일 NHK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에서 강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2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심폐정지, 14명이 행방불명됐다. 심폐정지는 사망선고가 내려지기 전 상태로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다. 특히 구마(球磨)강의 범람으로 침수된 구마무라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선 1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일 구마모토 폭우로 최소 20명 사망

시간당 최고 100mm 쏟아져 강 범람
심정지·실종자 많아 인명피해 클 듯

4일 일본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폭우로 최소 4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4일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폭우가 내려 구마모토현에 있는 구마강이 범람해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기면서 2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심정지 중환자, 14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엔에이치케이>(NHK)가 5일 보도했다. 건물 2층까지 물에 잠긴 구마촌 근처 한 노인요양 시설에서는 1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도로까지 침수되면서 구마촌 주민들이 고립돼 경찰과 자위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구조하

는 상황이다. 구조된 한 주민은 “물도 전기도 없는 상태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번 폭우로 구마모토현에서 15건, 인근 가고시마현에서 1건 등 최소 16건의 산사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서는 이날 총 9만2천여가구, 20만여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본 정부는 4일 오전·오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1만명 규모의 자위대원을 동원해 수해 지역에서 인명 구조 및 복구 작업을 돕도록 했다. 일본 기상청은 5일 밤부터 이 지역에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절박한 구조 요청 4일부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침수된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촌에서 고립된 주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밥' '물', 'SOS'가 적혀 있다. 구마모토/교도 연합뉴스



曰 코로나 와중에 물난리… 中도 폭우 피해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강물 범람과 산사태로 4일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의 히토요시 지역이 홍탕물에 잠겨 있다. 5일까지 최소 3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주민 20만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도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최소 12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기상청은 5일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뻗어 있는 장마전선이 올라와 한중일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달 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히토요시=AFP 연합뉴스



日 구마모토 홍수 사망·실종 49명 일본 구마모토현 남부 히토요시에 지난 4일 시간당 최고 100mm가량 폭우가 내려 시가지가 물에 잠겼다. 당국은 구마모토와 가고시마현 주민 20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홍수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는 5일 오후 9시 현재 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PA 연합뉴스】



4일 일본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에 있는 주택들이 새벽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됐다. NHK는 이번 폭우로 최소 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5일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마을에서 한 부부가 전날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무너진 주택 앞을 지나가고 있다(작은 사진). /로이터·AP연합뉴스

日 코로나에 물폭탄까지...구마모토현 하루새 500mm 폭우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1000여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현에서는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지며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다.

5일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74명으로 지난 5월 2일(300명)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도쿄도에서 가장 많은 131명이 발

하천 7곳 범람해 수십명 사망
신규 확진도 274명으로 늘어

생했고 이날도 111명의 확진자가 나와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가고시마현과 사이타마현에서 각각 34명과 27명이 확진됐다. 긴급사태 해제 이후 일본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이로써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만326명으로 늘었다.

4월 초 최대 700여명에 달했던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에 긴급사태가 선언된 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20명대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일본 정부가 5월 25일 긴급사태를 해제한 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50명대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구마모토현에서는 현재까지 2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심폐정지, 14명이 실종됐다

고 NHK가 전했다. 전날 새벽부터 쏟아진 비로 구마모토현을 흐르는 구마강 상·하류 구간에서 적어도 7곳이 범람해 히토요시시 등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다. 폭우가 집중된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에서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98mm, 미나마타시에서는 24시간 총강수량이 500mm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폭우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가고시마 두 현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대책실을 설치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일본도 중국도 '물폭탄' ... 인명피해 속출

지난 4일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 야스히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구마강이 넘치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왼쪽 사진). 5일 오후 1시 현재 이 지역 인명피해만 46명에 달했다. 지난 3일까지 중국의 26개 성·시에서는 폭우로 7조원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12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AP



日 구마모토현 '물폭탄' ... 20만명 대피 일본 남부 규슈지방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 일대 건물이 지난 4일 물에 잠겨 있다. 이날 구마모토현에는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났다. 5일 NHK는 이번 폭우로 4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구마모토현과 인근 가고시마현 두 곳에 거주하는 20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AFP연합뉴스